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메시지 9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

성경: 사 7:14-15, 렘 2:13, 15:16, 요 6:57, 63, 68, 고후 5:14-15, 12:7-9

I.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 완전한 가르침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타락한 상태의 우리는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신가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결작품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한다.

-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하여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구쳐 나오는 생수의 원천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게 원하신다—렘 2:13, 요 4:10, 14, 7:37-39 상, 시 46:4, 계 22:1, 참조 속 13:1, 계 4:5, 사 4:4.
- B.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누림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소망없고, 극도로 부패했고, 치료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렘 13:23, 17:9, 사 57:20, 히 3:12-13, 참조 창 21:9, 갈 4:29, 5:15-16.
- C.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우리의 의로서, 또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우리의 속 생명의 울로서 새 언약의 실재가 되기 위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체적인 몸, 즉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게 하시는데, 이 유기체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렘 23:5-6, 31:31-34, 사 42:6, 속 13:1, 시 36:8-9, 롬 5:10, 계 22:1-2.
- D.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데, 그것은 매일 아침 그분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접촉함으로(애 3:22-24, 시 43:4, 110:3),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애 3:55-56),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렘 15:16, 23:28-29, 요 6:57, 63, 68), 신언하여 그분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분배함으로(렘 1:4-10, 15:19) 누려, 변화되어(48:11),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실행하기 위한(32:39, 31:34, 엡 4:3-4, 2:10) 것이다.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최고봉이며, 성경의 최고의 계시이다—엡 1: 22-23, 2:10, 3:9-11, 4:1-6, 15-16.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예수 안에 있는 실재,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실재 상태로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 안에서, 온전케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로 복사된다—엡 4:20-21, 갈 2:20, 빌 1:19-21 상, 4:11-13.
- B.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실재의 영, 즉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시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여, 우리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하나님-사람의 삶의 실재 안으로 인도한다—엡 4:3-4, 요 14:17, 16:13-15, 고전 2:9-15, 6:17, 롬 8:4, 6, 갈 5:25-26, 참조 마 12:33-37, 시 38:13-14, 사 42:19.
- C.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활의 실재이다. 이 교통은 모든 믿는이들 속에 있는 실재의 영의 흐름, 순환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한다—고후 13:13, 빌 2:1, 요일 1:3, 참조 계 22:1.

I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7.

- A. 주 예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을 누림으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하늘에 속한 버터’와 ‘하늘에 속한 꿀’은 그분이 아버지를 살도록 공급하는 요인이 되고 아버지를 순종하도록 힘을 주는 요인이 되어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선택하시게 했다. 그분은 자신을 비하하여 작아지는 길을 취하셨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길을 취하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사 7:14-15, 출 3:8, 엡 5:25, 눅 2:12, 빌 2:8, 마 11:25-30, 요 1:14-17, 17:26.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 요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는 도구가 아니라 공급하는 요인이다. 걷기 위한 도구인 지팡이를 사용할 때에는 지팡이를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공급하고 힘을 주는 요인이 되시어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다—요 6:57, 63, 68, 롬 15:16, 골 2:19, 참조 롬 8:2.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신 주님을 접촉하여,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이신 그분을 매일 누려, 그분이 부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택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롬 5:1-5, 17, 딤후 3:15, 요일 3:16.
1.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그의 보배로움(벧전 2:7)으로, 가장 풍성한 은혜와(1:13, 4:10, 5:5, 10)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1:8) 누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주도적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그의 풍성한 공급으로 누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순교자가 되었다(5:1-4, 요 21:15-19, 벧전 4:19, 행 5:20, 40-42).
 2.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한 은혜(딤후 1:14, 고전 15:10, 58, 고후 12:7-9)와 가장 달콤한 사랑(롬 5:5, 8:35, 37)으로 누려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되었고(고후 5:14-15)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골 1:24).
 - a.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의 목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신성한 사랑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요일 4:8, 16)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엡 5:25, 6:24, 참조 1:4, 3:17, 4:2, 15-16, 5:2).
 - b.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나무의 실재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가 되신 분으로 체험했다—빌 2:17-18, 신 8:7-8, 삿 9:13, 마 9:17, 참조 아 1:2.
 - c. 바울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께 포도주가 될 정도로 그분으로 채워져,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죽음으로 순교자로서 관제로 부어졌고,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위해 허비하고 허비되어 기쁨으로 그의 경주를 마쳤다—빌 2:17, 3:12-14, 딤후 4:6-8, 고후 12:15, 행 20:24.